광주 가구자산 3년 연속 특·광역시 '꼴찌'

2019년 시도별 자산·부채·소득

3억4387만원…전남 3억196만원 17개 시도 중 15위
순자산, 해마다 전국과 격차…부동산 부문 취약
전남 근로소득 2673만원…2년만에 꼴찌 벗어나

광주 평균 가구 자산이 3년 연속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광주·전남 순자산은 매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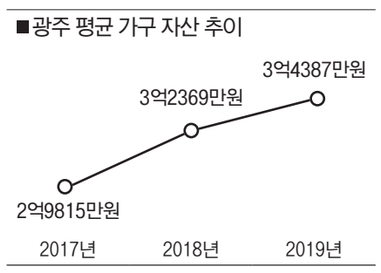
18일 통계청 시도별 자산·부채·소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3억4387만원·전남 3억19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 동안 광주 가구 자산은 8대 특·광역시 가운데 매해 꼴찌를 기록했다.

서울(6억4240만원)에 이어 특·광역시 중 세종이 5억878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4억1818만원), 울산(3억9305만원), 부산(3억5781만원), 대전(3억5692만원), 인천(3억5159만원) 순으로 높았다.

전남은 지난 2017~2018년 전북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자산이 낮았지만, 지난해 전북·충남을 뒤로 하고 한 계단 올랐다.

광주 가구 자산은 ▲2017년 2억9815만원 ▲2018년 3억2369만원 ▲2019년 3억4387만원으로, 지난해 자산액은 전년에 비해 2018만원 가량(6.2%) 가량 증가했다. 전국 평균 가구 자산은 3526만원(5.8%) 올랐고, 전남은 전년(2억9253만원)에 비해 943만원(3.2%) 증가했다.



광주·전남 지역민 자산은 전·월세 보증금과 부동산 부문에서 크게 취약했다.

광주 가구당 평균 전·월세 보증금은 1415만원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남(708만원)은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다. 광주 전·월세 보증금은 전국 평균(2697만원) 보다 1282만원 부족했고, 서울(5960만원)에 비해서는 4545만원이나 뒤쳐졌다.

실물자산에 속하는 부동산 자산 역시 광주는 2억2716만원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다. 전남은 1억8382만원으로 전북(1억8362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저축액은 광주 8070만원·전남 7487만원으로 전국 평균(7873만원)보다 높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광주·전남 모두 평균을 밑돌았지만 전남 신용대출액은 9개 도(道) 가운데 상위권에 들었다.

지역 부채액은 광주 5003만원·전남 4765만원으로, 평균(7910만원)을 3000만원 안팎 차이로 밑돌았다.

광주 가구 부채에서는 담보대출이 3108만원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임대보증금은 922만원(18.4%), 신용대출 649만원(13%)이 뒤를 이었다.

전남 부채는 담보대출 2815만원(59.1%), 신용대출 788만원(16.5%), 임대보증금 628만원(13.2%)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남 신용대출액은 9개 도지역에서 경기(1024만원), 강원(792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786만원)도 웃돌았다.

광주 임대보증금은 3년 연속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고, 지난해 전남 임대보증금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였다. 지난해 전국 평균 임대보증금은 2155만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광주 2억9385만원·전남 2억5432만원으로 전국 평균(3억5281만원)과 비교해 각각 5896만원, 9849만원 뒤쳐졌다.

열악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전남 근로소득은 하위권을 전전했다. 지난해 전남 근로소득은 2673만원으로, 2017~2018년 이어왔던 전국 최하위 오명을 벗어났다.

광주 평균 근로소득은 4032만원으로 전국 평균(3781만원)보다 251만원 높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광주전남본부 , 전통시장 추석 전력설비 점검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명절 대비 전통시장 전력설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전남 124개 시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6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계기함·인입선 등 노후 및 불량개소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시장 내 전력선에 근접한 건축물·통신선·고객설비 안전순시와 상인 대상 전기안전 홍보 활동도 벌였다.

같은 날 한전 광주전남본부 노사 대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1500만원 상당 시장 물품을 사기도 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불시정전 대비와 전력설비 복구를 위한 비상근무에 선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양에너지 2020년 임금협약 체결

㈜해양에너지는 지난 16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본사에서 '2020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조인식에는 김형순 대표이사와 범진기 해양에너지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는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해양에너지의 지속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했다. 양측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노사문화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김 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공감대를 찾아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조기에 임금협상이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조달청-광주창조경제센터 공공조달 지원 협약

광주지방조달청은 17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은 ▲우수한 창업·벤처기업 상품, 혁신시제품 발굴 ▲창업·벤처기업 상품 '벤처나라' 등록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지원 ▲공공조달시장 진출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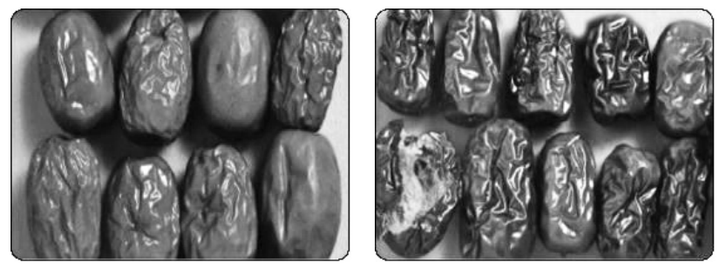
광주조달청은 앞으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향후 4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은행 "힘내세요! 광주 코로나 의료진"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오른쪽)은 17일 광주시청에서 이용섭(가운데) 광주시장과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에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생필품 응원꾸러미 1000상자를 전달했다. 이는 5000만원 상당으로, 전날 광주은행은 전남도에도 임직원이 직접 만든 꾸러미를 전했다. 〈광주은행 제공〉

한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6.17 (-29.75)
- 금리 (국고채 3년) 0.914 (+0.004)
- 코스닥 885.18 (-11.10)
- 환율 (USD) 1174.40 (-1.70)



국산 대추(왼쪽)는 연한 갈색에 대개 꼭지가 붙어있지만 중국산은 진한 갈색에 꼭지가 거의 없다.

이것만 알면 원산지 속을 일 없어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식별방법 공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전남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2주 가량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식별방법을 17일 공개했다.

소비자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도라지, 고사리, 곶감 등의 원산지를 한눈에 구분하도록 각 품목의 외형과 특징 정보를 담았다.

깐도라지는 길이가 짧고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아 일부가 남은 국산과 달리 중국산은 길이와 크기가 다양하고 껍질이 잘 벗겨져 깨끗한 편이다.

깨물었을 때 국산은 쓴맛이 거의 없고 중국산은 질긴 느낌과 쓴맛이 강하다.

고사리는 줄기 아래 단면이 불규칙하게 잘리고 먹을 때 줄기가 연하게 느껴지는 특징이 국산이다. 중국산은 줄기 아랫부분이 칼로 잘려 단면이 매끈하며 식감이 질기다.

곶감은 국산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이다.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컹하며 탁한 주황색을 띠고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다.

대추는 연한 갈색을 띠며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많고 진한 향이 국산의 특징이다. 중국산은 진한 갈색으로 붙어 있는 꼭지가 작고 향도 거의 없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스럽다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농관원은 이달 29일까지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계약 연장키로

물류·제조 등 6곳 조건 유지

금호타이어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중도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던 물류·하역 등 협력업체들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에서 물류와 제조, 하역 등을 맡는 협력업체는 5개 부문 6곳으로 직원은 700여명 수준이다.

이들 업체는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 8월 말을 기점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중도계약 해지를 금호타이어 측에 통보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3차례 새로운 협력업체를 찾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참여 업체를 찾지 못한 채 기존 업체와 계약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원·도급 업체가 모두 어려운 만큼 계약 조건은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 뒤 한시적으로 연장해왔던 도급업체의 인력 운용 문제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생산물량 확보 등을 통해 정상적 수급업체 운영과 생산현장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수급업체와 동반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XA | AIG | 하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KOREAN RE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